

#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ibrarian's Identity in Digital Environment

이 경 민(Kyung-Min Lee)\*\*

### 초 록

도서관전산화와 인터넷은 사서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및 직업감축으로 이어지게 하였으며 도서관 방문자 수를 급감시켰다. 하지만 많은 도서관의 사서들은 기존 업무에 매달려 있고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역할을 찾지 못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직업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그 직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사서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한 문헌들을 조사하였고, 문헌들이 제시한 것과 현직 사서들이 느끼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서베이(Survey)를 하였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지로 하여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사서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에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환경의 변화로 전문직으로서 서비스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활용교육이나 독서지도 및 각종 프로그램 지도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인다. 교육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교육과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사회에서 정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사서들은 정보교육과 매체교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훌륭한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 사서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ABSTRACT

Information Technology is making a lot of changes in the library. Especially the library computerization made the business of librarians convenient and made an impact in outsourcing and job reduction. The number of library users is decreasing because they can find information easily in the internet instead of library. But librarians are suspended in traditional business: they are not carrying out new role in changed environment. So, their identity is shaken. If a job does not have their identity, the job can not but disappears. This paper wished to find the identity of librarians in digital environment. For research the author examined literatures about new role of librarians and compared with librarian's opinions. To collect librarian's opinions, the author took e-mail survey to librarians who are working more than 20 years at libraries. Questionnaire consists of open-ended question. As a result, librarians are feeling their professional rewarding in public service. But they do not have much opportunity to service as professional. In some case librarians have opportunity to secure their expert area in reading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and computer program teaching. This means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medium education. The information education means to find necessary information. The medium education means to approach at information. The ability that can utilize information and medium is very important in lifelong learning society. Librarians can achieve the role of information and medium education. Librarians can find their identity in information and medium education which make users as intellectual person.

키워드: 사서, 정체성, 정보교육, 매체교육

Librarian, Identity, Information Education, Medium Education

\* 본 논문은 2006년도 숭의여자대학 학술논문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kmlee@sewc.ac.kr)

논문접수일자 : 2008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0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8년 6월 8일

## 1. 서론

### 1.1 연구문제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사회를 휩쓸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서직에 대한 정체성에 까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변화의 주요 요인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책을 디지털화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도 많은 부분 전산화하여 사서들의 업무가 줄어들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이용자들은 핸드폰 속에도 여러 권의 책을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고,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으며, 외국학술잡지를 열람하기 위하여 더 이상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이 전자저널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건수도 자연히 줄어들게 만들면서 사서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sup>1)</sup> 사서들은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사서들이 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서의 역할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대부분 관리자급 사서들이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일반 사서들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교육과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마케팅이라는 명목 하에 문화이벤트나 독서캠페인에 집중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은 위탁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속수무책이다. 도서관 업무가 전산화되고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사서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시간과 사회환경이 변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주요한 변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국제적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이호영, 김상돈, 신승배 2005, 99). 이 중에서 기술적 요인은 사서들에게 도서관 관리업무를 줄여주는 동시에 변화된 환경과 새롭게 변화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사서감축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감축한 사례도 있다.<sup>2)</sup> 이러한 일이 점점 확대되면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역할은 축소될 염려가 있다. 변화된 환경과 새롭게 변화할 환경에 적합한 사서들의 올바른 역할 즉 사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사서직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역할 즉 사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주제별 사서를 도입하여 교수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노원정보도서관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2007년 12명의 사서 중에 5명을 대학본부로 발령 내고 7명의 사서로 감축하였다.

## 1.2 연구필요성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페이퍼로 구독중인 외국학술잡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도서관은 구독중인 외국학술잡지를 대부분 전자저널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저널로만 구독하기로 결정한다면 담당사서는 어떤 업무로 전환하여야 할지 모르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페이퍼저널과 전자저널을 동시에 구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도서관은 변하고 있는데 사서들의 변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기본을 갖추어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꾸준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버틀러는 사서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론과 철학이 부족하면 기술적인 세부항목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병목 2005, 192)고 한 바와 같이, 사서는 사서로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정체성의 확신이 없는 직업은 존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일을 해야 할지, 지금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자문하면서 결국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그 동안 도서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존재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타 도서관들과도 경쟁하게 되었고 나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DB 제공업체, 정보조사 제공업체들과도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서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비록 도서관은 존재할지 몰라도 사서직은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서비스 정신과 자세가 중요하다(조경호 2007). 이와 같이 사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도서관이 외부에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서직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다.

## 1.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의 정체성에 관한 문헌고찰과 사서들의 역할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느끼는 직업의 정체성을 비교하였다. 사서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4개의 문항으로 된 서베이지를 25명의 사서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반 질문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식의 이메일을 이용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서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서울시내 S대학 문헌정보과를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서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로서 현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서로 정한 것은 20년이면 도서관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디지털 환경에서 그들이 필요한 사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답변자들의 구성은 대학도서관 6명, 공공도서관 5명, 기업도서관 2명, 학교도서관 1명으로 되어 있다. 답변 건수는 비록 14건 이지만 이것은 경험이 많은 사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이 특정한 대학 출신자로 한정되었고 또 모두 여성사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개인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홍성욱 2002, 143).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체성(正體性)이라는 의미는 외부와 자신과의 다르면서 내적 동일성을 가리킨다(이현재 2005). 네이버에 탑재되어 있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네이버에 탑재되어 있는 동아프라이밍영한사전에서는 '정체성(Identity)이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체성은 주로 개인의 본질에 관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직업과 연계시킬 경우에는

직업의 본질을 나타내며, 직업의 본질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기(이윤희 1999)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직업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직업윤리와 직업철학과 함께 논의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구분된다. 즉 직업윤리는 해당 직업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규정이다(김혜경, 남태우 2004). 이에 비하여 직업철학은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내부적인 직업관 혹은 직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윤리와 직업철학은 각각 직업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내면의식인데 비하여 직업의 정체성은 다른 직업과의 구분되는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들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면을 세라가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세라는 사서들의 역할을 인간과 인간들의 기록자료물 간의 중재자로서 행위라고 인식하였고(남태우, 김상미 2001, 2), 한편 정현욱과 강혜영(2007)은 사서가 도서관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조찬식(1996)은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 체제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도서관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되며 사회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도서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비스에 주요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사서는 인쇄매체뿐

만 아니라 디지털매체들도 함께 다루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의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적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독서하는 기술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문헌과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요약하거나 재기록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처리하는 등, 사서들의 역할은 보존·전승자, 교육자, 분석, 해석, 탐색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박인웅 1997).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봉사, 디지털레퍼런스 등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새로운 역할을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사서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용근(2007)이 도메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서들은 직업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환(1998)이 992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서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김갑선과 이은철(2002)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서들은 자신의 직업이 사서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 망설여진다는 사서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사서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엄영애(2004)는 이용자들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직으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고 하였다. 사서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원인은 이제환(1998)은 사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소홀하고, 환경의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김으로써 스스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왔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여러 연구논문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서들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수용하는 연구논문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 3. 사서들의 직업의식

#### 3.1 사서의 보람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보상과, 일 그 자체의 즐거움, 자기를 실현하는 창조의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인간적 의미를 찾을 때 물질생활의 충족감과 정신적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인격을 닦아 인간으로서의 완성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였다(김대균, 박균열 2006, 20).

사서들의 경우는 직업안정성에 대한 강한 애착감을 가지면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인정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서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김병섭 1994), 자아실현, 사회적 인식도, 보수, 승진, 직무감독, 동료 신뢰, 작업환경 등 7가지 직무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인석 1997).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서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서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에 대한 결과인 표 1을 보면 수서, 행정 등 도서관 관리업무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표 1) 사서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

- 도서관 신축업무를 담당하고 완수했을 때
- 회사내 직원에게 딱 맞는 자료를 서비스 하였을 때
- 연구에 도움을 주어 무사히 학위를 받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와 찾기 어려운 자료를 여러 통로를 통해 어렵게 구했을 때 그리고 자기개발 차원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
-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학무모 대상 논술교실 등) 운영시
- 학생들의 참고질의 및 논문작성 등을 도와 주었을 때
- 원하는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했을 때
- 학교도서관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 사서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때
-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주었을 때
- 이용자가 찾는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때
- 외부자료 제공할 때와 학생들을 위하여 원고지작성법을 지도할 때
- 문화교실을 열어 도서관이 정보와 아울러 문화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일

에 정보제공과 같은 대민관계인 직접적인 정보 봉사에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서들은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봉사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도서관 전산화가 도입되었기에 사서들로 하여금 그 동안 관리업무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사서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직업에서 보다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3.2 사서의 역할

사서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문헌고찰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노테는 도서관에서 사서는 정보원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듀이는 관리자인 사서가 단지 책을 지키고 배

급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되고, 학문의 안내자, 문화의 전달자, 그리고 도서관의 중개자이어야 한다(남태우, 김상미 2001, 102)고 하였고, Coatney (2008)는 학교도서관의 경우에서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교사라고 하였다. 또 사서들의 역할 유형을 이용자지향형, 조직지향형, 전문가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도 하였다(정현욱, 강혜영 2007).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서는 도서관 관리자가 아니라 정보관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서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인류의 모든 기록과 지식을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사서들에게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수행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인 표 2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사서들은 수서, 정리 등 도서관관리 측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많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디지털자료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한 참고봉사를 제공하는 경우 한 건뿐이다. 이것은 실제 도서관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서관 관리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또 정보생산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사서들에게 물어보는 질문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사서들은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인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새롭게 제시된 사서들의 역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인에는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의 사서들이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

지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서들의 입장에서는 사서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업무를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3.3 사서의 전문지식과 기술

일반적으로 전문가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정신적 집중을 요하는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가가 되려면 일반인이 손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고급화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서직은 적서를 적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은 사서들은 전문직으로서 다소 회의를 느

(표 2) 담당 업무

- 단행본 수서를 담당하고 있다.
- 디지털자료실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터넷업무의 전반적인 참고봉사
- 사료관 운영의 보조를 맡고 있다.
- 인력부족으로 자료선정부터 검수와 체킹 및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장으로서 사회적 미션인 정보제공기능, 독서진흥, 평생교육활성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교육 및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한다.
- 평생학습관에서 행사담당을 맡고 있다.
- 도서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제담당 팀장으로서 팀 업무를 총괄한다.
- 사서교사로서 도서관 운영과 독서지도이다. 창의적인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기업의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혼자서 구매, 정리, 보관, 서비스 모두를 담당한다.
- 공공도서관의 자료봉사과장으로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 도서관 정책과 운영전반에 관한 일과 도서관 홍보, 대외협력, 직원교육, 수서업무도 겸하고 있다.
- 회사내의 사내간행물자료 정리, 참고봉사, 디지털화 자료도 담당하고 있다.
- 정리업무를 맡고 있다.

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로부터 그들이 느끼는 전문지식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조사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전문지식이나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표 3)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

- 사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로는 참고봉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문주제를 상담하러 오는 경우 관련도서를 확인하여 주기도 하고,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타관과의 연락과 협조로 이용자와의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법정 투쟁 중이라며 이용자가 법령집을 찾다가 모를 경우 검색은 물론 판례조항까지 찾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광복회 회원이라면서 관련자료를 보고 싶다고 해서 서고 속에서 오래된 도서 중 관련도서를 찾아 전달해 준 경우도 있었으며, 할머니 한 분은 예전 어릴 적 본인이 졸업한 학교건물이 사라졌다 해서 졸업장을 못 받는 경우 근처의 지역명을 찾아 주기도 하고, 외국인 경우, 원서가 부족한 관계로 오래된 원서가 있는 서고를 같이 가서 찾아주거나, 찾아 다음에 왔을 때 대출해주는 경우
- 수서, 연속간행물관리, 도서관 행정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서로서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역시 수서업무에서 이용자들의 자료이용행태 및 학내외의 환경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관의 특성에 맞는 수서업무 계획 수립과 자료선정 등의 업무 수행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됨
- 전문사서로서의 업무에는 각종 정보원으로서의 안내 등 주제별 참고봉사, 독서진흥 사업(성인/어린이 독서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독서진흥 행사 기획),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지역에서 가장 전통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속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봉사 제공업무가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함.
- 학생과 교수들에게 참고문헌 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 교육자료관에서 관람객의 견학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역사적 소견과 함께 관람객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전문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참고봉사 서비스 업무,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 등
- 너무 넘쳐나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용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참고사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서관에서의 편목업무가 가장 기초적으로 사서로서 전문직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이라는 미명아래 정리업무가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됨. 아울러 열람업무(대출/반납, 개가제) 또한 업무자동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며, 참고봉사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털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나마 무분별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과 같은 이용자서비스 업무에 신경을 써야 하나 주제 배경이 약한 탓에 신뢰성이 문제이다. 고로 요즘엔 과연 사서가 전문직일까?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음.
- 도서관 자료 선정, 자료 정리, 추천도서 작성, 독서치료 행사 진행, 독서회 운영, 각종 문화행사, 초등학생 대상 독서교실 등 독서와 관련된 모든 행사입니다.
- 주제전문서비스(상호대차 포함), 자료조직, 도서관 문화행사, 도서관 이용교육, 장서개발(서지작성), DB평가, 도서관시스템 관리
-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히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면 급여나 혹은 승진 혹은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다른 혜택은 회사로부터 받지 않고 있어요.
- 작게는 모르는 한자 찾아주는 일부터 학위논문 작성 시 필요한 참고자료 찾아주고 상호대차 신청해 주는 일로서 참고자료를 검색하여 리스트 뽑아주는 일이 가장 전문지식 필요하다. 이런 일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 반면, 분류 및 편목 등 정리업무는 사서들끼리 전문성을 가장 많이 자주 느낄 수 있는 일.
- 사서교사로서 도서관업무는 당연히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아울러 독서지도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 소양을 다듬어 학교에서 당연히 인정받는 사서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독서치료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사서자체가 전문직이라고 인사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나 참고봉사는 좀 더 전문적이라 생각합니다.



것은 자료선정,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 컴퓨터프로그래머 업무, 정보활용교육, 독서지도, 분류, 편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고, 분류는 아웃소싱으로 사서 업무에서 분리됨으로써, 고유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전문지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대부분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이제환 1998). 이러한 일은 일반인들이 사서와 만나는 접점이 대부분 대출 반납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사서들에게 정보검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더구나 이용자들이 찾는 정보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별참고사서도 없으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박인웅(1997)은 우리나라 사서들을 진단하여 사서집단으로서 전체적으로 자질이 부족하고, 전문직 정신이 부족하며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사서들의 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메일에 의한 서베이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사서들에게는 전문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정보활용교육, 독서지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 영역으로 활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서비스하는 기존 사서의 핵심업무는 도서관전산화로 넘겨주고, 새로운 틈새 분야나 혹은 그 동안 관리업무에만 집중하다가 소홀히 했던 독서지도 분야와 같은 것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4 업무의 변화

직업을 변화시키는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국제적 환경변화들로 인하여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원천이 되는 직업이 증가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은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직업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기술적인 요인은 사서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서업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안인자(2005)에 의해 한국도서관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60년대에는 시설관리 중심, 1987년대에는 평생교육, 1991년대에는 사서 재교육, 1994년대에는 독서생활화, 2005년대에는 디지털도서관 및 전문적 서비스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또 1983년과 1993년도의 사서직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83년에는 전통적인 자료관리업무, 즉 수서, 정리, 장서관리, 정기간행물, 복사업무까지 기술적 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봉사업무는 참고업무와 대출업무뿐인 것으로 전체업무의 70% 이상이 관리업무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1993년도의 학교도서관사서교사실무분석 자료를 보면 독서교육 및 도서관활용교육,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를 학교도서관 고유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1983과 비교해서 자료전산화 업무, 정보이용교육, 지역사회봉사, 디지털정보시스템운영, 네트워크에 의한 도서관협력의 업무가 새로운 업무로 교체되었지만, 기존의 관리업무들이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일의 부담이 매우 줄어든 상태이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업무는 어떻게 변화였고 어

떻게 변할 것인지를 사서들을 대상으로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하였다(표 4 참조).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전산화를 완료한 상태라서 사서들은 많은 부분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업무의 변화 예상

- 현재 업무가 좀더 전산화되어 투명하게 되어 실무관리가 편해지리라 생각한다. 현재는 아직 관련업무의 서류와 인터넷이 동일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좌인 경우 관련 강좌 신청이 최근 컴퓨터화가 되어 접수를 받고 있는 초기이나 이로 인한 서류와의 통일이 되지 않아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직원과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시 결제하고 누구나 사용한 예산의 흐름을 알고 남녀노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골고루 포함되어 누구나 저렴하게, 소외계층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편리한 기획 프로그램이 작성되리라 생각한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서선정 및 신청 등의 업무는 이용자가 대형서점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선정하여 직접 구입 신청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은 이용자와 자료 생산 및 공급자간에서 소속 기관과 자관 특성에 맞는 양질의 자료습득을 위한 통제기능 쪽으로 역할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됨.
- 미래 도서관은 도서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부문별 자동화의 도입이 더욱 가속화되어 단순 업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한 날로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개인화서비스, 참고봉사 업무 등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됨.
- 도서관 업무가 전산화로 간편해 지기는 했지만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므로 업무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좀 더 전문적인 안내인으로서, 이는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업무인데, 교육사료관은 박물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도구는 점점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이라는 전자 매체에 익숙해져야 하며 또한 이들의 도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디지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개인의 경쟁력도 확보될 수가 있다.
- 갈수록 정리 부분은 외주로 바뀌는 경향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각자 정리 방식들이 있어 Keri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구체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주제에 관련된 이용자 서비스가 업무이므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주제별서지 혹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자료 정리업무는 아웃소싱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이미 다른 지역은 실시되고 있다고 함), 대출 반납은 RFID 도입으로 자가대출 반납이 될 것이며, 연체 도서 반납은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어 연체율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하던 사서들의 업무의 폭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평생학습 분야에 집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유아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등 독서 관련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서라는 포괄적인 자격보다는 구체적인 자격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 먼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 서비스의 유형도 매우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예컨대 공간문제, 인력문제, 재정문제 등은 앞으로 각 기관 간 특성화와 연결된 도서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Library 2.0의 도입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따른 도서관의 외형적인 변화는 기존의 수서, 정리업무가 웹 환경에서 수행되어 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유형과 채널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지역간, 국제간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매우 활발히 움직여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Question point같은 CDRS가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제는 참고업무가 개인의 할당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모든 자료가 전자화되어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자료는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도서실은 그야말로 문화지식의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정리업무는 점점 서양자료 및 국내자료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다운받는 일이 많다 보니 전문성이 희박해 질 우려가 큼
-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이 강조될 것 같다. 본교에서도 전통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바 학부형, 지역주민까지 끌어안는 학교도서관이 되려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학교도서관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독서치료적 역할도 활성화 되리라 믿는다.
-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인 표 4를 분석해 보면 사서들은 기존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고, 기존의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았거나 혹은 새롭게 창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로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면서 개인화서비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주제별 서지, 평생학습분야 지원, 독서관련 분야의 세분화, 도서관 협력, 문화적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사서들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이것은 그 동안 사서들의 업무가 인쇄매체를 주로 다루던 과거의 도서관 환경에서 수행되던 업무에서 디지털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와 인쇄매체로부터 온라인서비스와 디지털매체로 옮겨가면서 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참고서비스, 장서개발, 보존이 이제는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4.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

이메일에 의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들은 수서, 행정 등 도서관 관리업무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 정보제공과 같은 대민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가 도서관 전산화와 더불어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사서와 이용자간의 접촉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서들은 자신

의 역할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비록 많은 연구논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것은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이 직접 느끼는 업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들을 발휘할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들 스스로가 전문지식이나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료선정,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 컴퓨터프로그래머 업무, 정보활용교육, 독서지도, 분류, 편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살릴 수 있는 업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서관 관리적인 측면의 업무는 도서관전산시스템으로 넘겨주고 새로운 틈새 분야나 혹은 관리업무에 집중하다가 소홀히 했던 독서지도 분야와 같은 것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는 정보활용교육, 관람지도, 원고작성법지도, 독서지도, 디지털매체활용법지도, 인터넷 참고봉사, 정보제공, 상호대차, 개인별 맞춤서비스, 자료선정, 정보검색, 평생학습지원 등과 같은 것들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참고봉사, 정보제공, 상호대차, 개인별 맞춤서비스, 자료선정, 정보검색은 기존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정보활용교육, 관람지도, 원고작성법지도, 독서지도, 디지털매체활용법 지도는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강조를 둔 것들이다. 이로서 미루어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은 교육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서들에게 도서관

자료 사용법에 대한 강의식 교육을 중지하고 대신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가상공간이든 물리적인 공간에서든 사서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Reyes 2006)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제별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내 사서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서들의 교육서비스는 비록 이번 조사 과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제시하고 있다. Nitecki(1993)는 사서의 역할을 가르치고, 연구를 지원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William(1995)은 참고사서의 업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기존의 업무 이외에 컴퓨터활용을 위한 기술적인 업무와 정보활용교육이 사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사서들로 구성된 Taiga Forum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학습지원센터와 협력을 모색하여 연구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교사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Coatney 2008).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명칭까지 평생학습관으로 개명하여 주민들의 성인교육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도 사서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교육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일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정보교육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매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서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 4.1 정보교육

정보사회의 직업은 점차로 높은 창의성과 잘 개발되고 훈련된 정신적인 능력의 발휘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한다(이용덕 2006). 이에 부응하여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는 지식의 내용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법칙, 공리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개별지식은 필요할 때 정보의 저장고에서 인식, 검색해내고 분석, 평가, 종합 이용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자기 학습방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문제기반학습법(PBL)이 있다. 문제기반학습은 사서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Cheney 2004). 문제기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교수들은

3) Taiga Forum은 미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국 대학도서관들 중에서도 탑에 해당하는 50여명의 도서관 사서들이 매년 모여 토론을 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http://www.tomkeays.com/blog/archives/2006/05/24/003162.php>)을 보면 전통적인 도서관의 조직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레퍼런스와 정리사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에 Public service와 Technical services들은 Consulting이라는 명목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서수가 50%나 줄어들 것이며, 종합목록으로 인하여 개별도서관은 더 이상 자체 OPAC은 필요 없어지고, 대학도서관의 전산실은 대학의 전산센터와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못한다. 유소영(1994)은 정보의 집적체로서 도서관 자료를 인식, 검색, 획득, 평가, 이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교육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보교육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보활용교육으로도 사용되지만 도서관이용교육과는 다른 의미이다. 즉 도서관이용교육은 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정되지만 정보교육이라는 용어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비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도서관이용법을 비롯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용법을 제공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도서관 이용법을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참고문헌작성법과 학위논문작성법 그리고 리포트작성을 위한 정보활용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용법이 건축, 인류학 등 전공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보다 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청구기호,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개인정보보호방법, 네티켓, 저작권, 독서와 글쓰기를 연계한 북클래스,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있고,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성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독서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이용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교육담당 사서들을 정하여 그들의 자질에 문헌정보학 이외에 주제분야 지식과 정보활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최상희 2007).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면 사서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교육에는 단순한 도서관이용법에서부터 리포트 작성법, 논문작성법, 데이터베이스 소개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도서관에서 이러한 정보교육 서비스가 생긴 것은 최근의 일들로서 모두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한 결과들이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꾸준히 분석하면 사서들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할 수 있다.

갈수록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에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업무가 미래 사서의 주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서들에게 주어진 또 한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 4.2 매체교육

정보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문자를 기반으로 한 책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책과 더불어 다양한 전자매체가 개



발되었다. 이러한 매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잠시라도 등한시하면 디지털문맹이 되기 쉽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야 할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또 같은 콘텐츠라도 매체에 따라 전달하는 효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은 책, 영화, 뮤지컬, 만화 등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지만 각 매체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은 CD-ROM, DVD, e-learning, Web, MP3, PMP, 휴대폰, PDA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신세대 이용자들은 휴대폰이나 기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각종 멀티미디어는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90년대부터 교실에서는 각종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교실에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멀티미디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어학습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은 언어습득의 촉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이상기 2005)고 한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은 보다 현실적인 소재를 수업에 도입하고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도 폭이 넓고 다양하며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

터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환경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멀티미디어실을 제공하고 동시에 각종 DVD와 비디오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멀티미디어실에는 참고사서에 해당하는 사서들은 배치되지 않고 단순히 컴퓨터를 관리하는 수준의 사서들 역할을 수행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선 학교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강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추천하라면 적당한 비디오를 추천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 도서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멀티미디어실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각종 컴퓨터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질문이 있어도 물어볼 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매체관련 교육과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DSLR 카메라, 아비드 등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사용법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작성법, EndNote와 RefWorks 이용법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eTL(e-Teaching and Learning)을 기반으로 각종 사이버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무선환경에서 모바일콘텐츠(휴대폰과 PDA)를 사용하여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저널과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도서관에서는 e-learning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전자저널과 e-book, CD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과 영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컴퓨터 기초를 비롯하여 한글, 인터넷 활용, 포토샵 등의 정보통신기술교육과 독서를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영화제라는 제목으로 영화정보도 별도 메뉴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독도서관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컴퓨터 교실, PDA를 이용한 영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원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법, ACCESS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Connecticut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와 같은 대학도서관에서는 멀티미디어실에 참고사서들을 배치하여 그곳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디지털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Connecticut College와 같은 곳에서는 사서들에 의해서 파워포인트를 지도하지만 컴퓨터기술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이용자들은 참고사서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컴퓨터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매체교육 기회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나 교육 기회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자기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과정을 마친 성인들에게 평생학습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혼자서 학습하는 환경에서 매체를 잘못 선택하면 학습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 5. 결 론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화가 가장 쉽고 네트워크로 전달하기 쉬운 돈과 책에 관련된 분야이다. 대표적 기관으로 은행과 도서관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이미 1997년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외형적으로 크게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도서관은 아직 건재하다. 그러나 도서관 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도 계속 건재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전자책과 전자저널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인터넷은 참고사서의 존재의미를 흔들어 놓았으며, 도서관전산화는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사서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회의론을 느끼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직업으로서 사서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고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면 사서들의 역할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데도 아직 정확한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직업의 역할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면 그 직업의 정체성은 의심받게 되고 점점 그 직업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변화된 사서들의 새로운 역할 즉,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현직에 근무하는 경험 많은 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메일 조사에 응한 사서들에 의하면 사서들

은 정보제공과 같은 대민관계에서 직접적인 정보봉사로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지만, 실제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 관리차원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고, 전문직으로서 사서들이 가지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정보봉사 차원에서 발휘할 기회가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정보활용교육, 평생학습분야 지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독서지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 영역으로 활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사서들의 정체성을 교육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서들이 제공하는 교육을 분석해 보면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정보교육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매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정보교육과 매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봉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서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하고 있다. 평생학습에서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사서들에게 주어진 정보교육과 매체교육을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기관에서 먼저 수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 출현할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관리적인 도서관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이제야 말로 정보서비스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서는 정보교육과 매체교육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워주어, 이용자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사회에서 훌륭한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서 사서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대균, 박균열. 2006.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병섭. 1994.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한국행정학보』, 28(4): 1279-1299.
- 김영귀. 2003.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119-141.
- 김용근. 2007.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417-439.
- 김혜경, 남태우. 2004.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21(4): 330-352.
- 남태우, 김상미. 2001.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 셰라(J. H. Shera)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류인석. 1997.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7-33.
- 박인웅. 1997.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연구. 『도

- 서관학논집』, 25: 207-223.
- 서혜영, 이숙현. 2002. 아버지의 직업만족도 및 가족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27-51.
- 안인자. 2005. 사서직 업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233-246.
- 엄영애. 2004. 사서직의 전문적 요건과 수행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59-175.
- 유소영. 1994.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6): 53-74.
- 이병목, 감수. 2005.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파주: 한올아카데미.
- 이상기. 2005. 대안으로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2): 285-306.
- 이용덕. 2006. 한일 대학생의 직업의식 비교분석. 『일본문화연구』, 18: 159-172.
- 이윤복. 2002. 디지털 정보시대의 윤리적 쟁점들. 『대한철학회논문집』, 84: 133-167.
- 이윤희. 1999.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42: 41-64.
- 이은철, 김갑선. 2002.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5-47.
- 이제환. 1998.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도서관학논집』, 28: 505-525.
- 이현재. 2005. 정체성(Identity) 개념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試論). 『철학연구』, 71: 263-292.
- 이호영, 김상돈, 신승배. 2005. 『현대 지식정보 사회와 직업』. 서울: 시간의 물레.
- 조찬식. 1996.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67-84.
- 정현욱, 강혜영. 2007. 도서관 사서의 역할지향(Role Orientation)에 관한 Q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3-30.
- 조경호. 2007. 공무원 직업만족도 변화분석.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17-333.
- 최경구, 안치민. 1992. 한국 기술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성. 『아세아연구』, 88: 161-184.
- 최상희. 2007. 사서직 구인광고에서 나타난 교육사서 직무와 역량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201-215.
- 홍성욱. 2002.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 서울: 들녘.
- Arrigo, Paul A. 2004. The reinvention of the FDLF: A paradigm shift from product provider to service provider.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30: 684-709.
- Barton, Jane. 2006. Digital librarians: boundary riders on the storm. *Library Review*, 55(1/2): 85-90.
- Calhoun, Karen. 2007. Being a librarian: metadata and metadata special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Library Hi Tech*, 25(2): 174-187.
- Cheney, Debora. 2004. Problem-Based Learning: Librarians as Collaborators and Consultants. *Libraries and the Academy*, 4(4): 495-508.
- Coatney, Sharon. 2008. Library media specialist-not a job for the faint of heart.

- Teacher Librarian*, 35(3): 48-60.
- Diana, L.H. 2005. Changing roles of reference librarian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268-282.
- Giuse, Nunzia Bettinsoli. 2007. The next challenge: where do we go from here?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5(1): 11-20.
- Melchionda, Maria Grazia. 2007. Librarians in the age of the internet: their attitudes and roles. *New Library World*, 108(3/4): 123-140.
- Nitecki, J. Z. 1993. *Metalibrarianship*. [cited 2008. 4. 12]
- <<http://www.twu.edu/library/Nitecki/metalibrarianship/index.html>>.
- Reyes, Veronica. 2006. The Future Role of the Academic Librarians in Higher Education. *Libraries and the Academy*, 6(3): 301-309.
- Wallis, Lisa C. 2006.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faculty in one school of public health.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4(4): 442-446.
- William, L. W. 1995. Differentiated Service: A New Reference Model.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1(2): 103-110.